

## 자녀의 바른 인터넷 사용법

최근 정보화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3-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51.6%로 절반을 넘는 수치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.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균 4.3시간으로 남자아이 (53.3%)가 여자아이(49.9%)보다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.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높은 정보화 수준을 고려한다면 조기 교육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. 또 미취학 유아들이 인터넷 사용이 불가피해진 배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.

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부작용도 뒤따르는 법입니다. 유아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92.5%는 게임, 오락, 음악듣기로, 38.9% 교육, 학습을 위한 이용으로 정보 획득은 4.1%로 조사되었습니다. 또 너무 어린 나이에 유해 사이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이제 인터넷은 생활필수품입니다. 어릴 때부터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그렇다면 바른 인터넷 활용을 위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?

### 1. 부모 스스로 인터넷 활용 능력을 키웁니다.

바르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. 절제된 인터넷 사용습관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니다.

### 2.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 주세요.

온 가족이 지켜볼 수 있는 곳에 컴퓨터를 이동시키고 TV를 보는 것처럼 인터넷을 공개적인 행동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.

### 3. 인터넷 사용 계획표를 만들어 컴퓨터에 붙여주세요.

부모의 일방적인 계획표가 아닌 유아와 함께 만든 계획표이어야 합니다. 인터넷 하루 사용시간은 40분으로 제한해주길 권합니다. 6세 이상도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세요.

### 4. 인터넷 사용 규칙을 만들어 컴퓨터에 붙여 주세요.

인터넷을 하는 동안 음식물 먹지 않기, 책 보기 않기, 인터넷 휴일 정하고 지키기 등 지켜야 할 규칙들을 만들어 봅니다.

### 5. 인터넷 환경에도 신경 써 주세요.

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들의 어른이 이용하는 책상과 의자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아동용 마우스, 보안경 등을 갖춰 주도록 합니다.

### 6. 부모님이 사이트를 추천해주세요.

아이들은 어떤 사이트가 좋은지, 나쁜지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. 유익하고 건전한 사이트를 부모님이 먼저 찾아 체험해 보고 권해주도록 합니다. 또 우연히 유해 정보를 접할 수 있으므로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.

인터넷에 노출되는 유아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. 잘못된 인터넷 습관에서 오는 인터넷 중독, 게임 중독, 현실과 인터넷 세계의 혼돈, 과잉행동장애 등 유아들의 올바른 인터넷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합니다.